

## 인도네시아 노트담 선교 90주년 맞이



2023년 11월 21일, SND 인도네시아 관구는 선교사들의 인도네시아 도착 89주년을 기념했고 인도네시아 선교 9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감사의 해를 열었습니다. 이 감사로운 행사에서 우리는 야신타 수녀의 수도 서원 60주년, 클라우디아 수녀와 코스트카 수녀의 50주년, 코스마 수녀와 모니카 수녀의 40주년, 레사 수녀와 에르네스타 수녀의 25주년도 축하했습니다.

감사의 경축은 인도네시아에서 사도직을 시작했던 다섯 명의 네덜란드 선교사 수녀들의 현존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써 페칼롱간 성모 성당에서 전야 기도 예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노트담 수녀회가 인도네시아에서 노트담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이 초창기 수녀들이 극복해야 했던 어려움에 감사와 고마움을 느낍니다. 자바 섬의 여러 공동체 수녀들과 기타 지역에서 온 몇 명의 수녀들이 이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감사의 해 미사 성제는 페칼롱간의 성 베드로 본당에서 오전 9시에 시작되었으며 12명의 사제들이 주요 집전자 푸르위케르토 교구의 아구스티누스 신부와 함께 공동 집전했습니다. 마침 강복 전에 마리아 코스트카 수녀는 경축자들을 대표하여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노트담 인도네시아 관구장인 마리아 카리타 수녀가 노트담 인도네시아의 90주년 로고와 이듬해의 아홉개 지침인 1.노틀담 회원은 영성에 깊이 뿌리내린다. 2.노틀담 회원은 증거하고 연계한다. 3.봉사에 결실을 맺는다. 4.노틀담 회원은 교회 사명의 지속성을 위해 협력하여 일한다. 5. 노트담 회원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 움직인다. 6.노틀담 회원은 다양성 안에서 일치한다. 7.노틀담 회원은 경계를 넘나들며 협력한다. 8. 노트담 회원은 나누며 보살핀다. 9.혁신과 창의성을 성장시킨다.를 발표했습니다.

미사 후에는 친근한 모임을 가지기 위해 모두 페칼롱간 성 베드로 본당 지하층으로 갔습니다. 라셈 LKSA 마르가닝시 아이들, 페칼롱간 비오 초등학교, 비오 중학교, 유기서원자들과 페칼롱간 성 베드로 성당 청년회의 율동을 즐겨 감상했습니다.